

“우리에게 희망의 근거가 있다”

김진석 | 아이세움 마케팅팀장



“도서의 유통구조를 새로이 만들어야 하네. 여기에는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보네. 기존의 전통적인 유통방식은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만들어져 그 어떤 새로운 것보다 좋을 수도 있지. 허나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네.”

김대리, 9·11 테러 이후 주춤하던 출판시장이 이제야 조금은 회복된 듯한 느낌이 드네 (경기의 회복이 아니라 겨울 시장 대비하는 계절적 회복). 지난 2~3개월 동안은 지금보다 훨씬 힘들었을 것이라 생각하네. 제대로 챙겨주지도 못하고 다그치기만 했던 것이 여간 미안한 게 아니라네.

며칠 전 어느 술자리에서 출판시장의 흐름을 화제로 삼아 이야기할 때 나는 많이 당황했네. 아직은 짧아 미래에 대한 비전을 얘기할 줄 알았는데 너무 고전적인 방식에 사로잡혀 있어 김대리에게 조금은 실망했다는 것을 밝히고 싶네. 몇 번 이야기한다고 해도 생각의 차이가 쉬 좁혀질 것 같지 않아 이렇게 늦은 밤에 글을 쓰고 있네.

아동출판물 시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곳이지. 그 전쟁터에서 승리해 기쁨을 함께 맛보기 위해 우리 팀원들이 모였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네. 현대 간혹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방식과 시장을 바라보는 안목에서 차이가 있다고 해서 얼굴을 붉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서글췌네. 서로의 차이가 하나로 통일될 때 그 힘은 두 배, 세 배로 커질 텐데 하는 아쉬움 때문이었지. 나는 영업조직이란 근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네.

우리의 조직도 벌써 2년이 다 돼가는군. 이때쯤 현 단계를 명확히 분석하고 나아가야 할 때가 아닌가 싶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시장 여건을 가장 정확히 살필 줄 알아야 하지. 우리가 일상에 파묻혀 혹시나 중요한 흐름을 간과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해보자는 것이지.

독자 욕구 파악하고 새로운 유통구조 만들어가야

첫째, 시장을 거시적으로 바라봐야 하네. 국내의 출판현황은 물론 선진국들의 출판현황도 매시기 놓치지 말고 살펴봐야 하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출간하고 있는 도서들도 세계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줄 아네. 둘째로는 현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보네. 다른 출판사들의 출간 형태부터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의 욕구까지 끊임없이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네. 독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놓치면 책의 생명력은 불 보듯 뻔하지 않은가. 셋째로는 도서의 유통구조를 새로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네. 여기에는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보네. 기존의 전통적인 유통방식은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만들어져 그 어떤 새로운 것보다 좋을 수도 있지. 허나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네. 새로운 것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서로 신뢰할 수 있는 판매 데이터를 만들어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든가 IT를 활용한 마케팅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고 보네. 넷째로는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책 읽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지. 예를 들어 독서캠프를 만들어 방학중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좋다고 보네. 나아가서는 초등학교와 연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괜찮겠지.

희망 일구는 2002년 됐으면

쉽없이 전진해야 하는 게 우리의 몫이지만 이런 일들이 마냥 쉬운 것만은 아닐 것이네. 그만큼 부지런해야 하고 시간을 쪼개 써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 특히 아동출판물을 전문적으로 출간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은 더욱더 그렇네. 시장이 다른 분야에 비해 조금 커진다 하니까 너나없이 뛰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남들보다 더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리는 없어질 게 뻔하지.

김대리, 다소 무거운 이야기들만 늘어놓아서 재미없는 글이 됐을 줄 아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출판사에 비해 훨씬 더 행복한 조건이어서 그나마 다행이지. 무엇보다 우리에게겐 ‘멋진 대리 김대리’가 있어서 무슨 일이든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이네. 올 한해 김대리가 최일선에 서서 다른 팀원들과 함께 멋지게 희망을 일궈보도록 하세.

김대리, 겨울은 추워야 제 맛이 라고 하지 않은가. 언제 다 함께 스키장엔 못가더라도 눈썰매장이라도 다녀오세. 돌아올 때는 저마다 가슴에 희망의 텃밭을 일궈두면 좋겠네. 2002년 말에는 이 희망의 씨앗이 가슴 벽찬 성과로 열매맺길 빌어보네. 무엇보다 건강하게. ■

김진석씨는 푸른나무, 한국출판유통 등에서 일했고, 지금은 아이세움 마케팅 팀장으로 재직중이다.